



○ 한국 개혁주의 설교자 시리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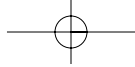
# 성도의 감사

(로마서 11:33~12:2)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과의 합성어로 ‘기쁨’이라는 말에서 연유한 ‘은혜’에 ‘더 좋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감사인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가운데서 성도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때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도 모든 사람으로 인해 감사 하길 바랍니다. 학문에 '감사학' 이 없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가운데서 '감사학' 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나타나고 구원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로 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심정으로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1. 죄인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8~3:20까지 '인간은 다 죄인이다' 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노 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 도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감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버려두셨습니다. 첫째로 24절에 우상 숭배에 버려두셨고, 둘째로 26 절 이하에 성적 범죄에 버려두셨고, 셋째로 28절에 모든 불의한 행동에 버려두 시며 21가지의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버림을 받은 자들 은 불의한 자들이고 불경건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미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버림 받은 자들은 감사가 없고,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과 혐 기와 다툼과 모든 이 불의한 행동과 불경건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의 형편을 볼 때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디모데후서 3:1~5).”

또한 우리 주변에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를 제주도에서 모시고 갔다 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이 있고, 비록 술을 먹었다고 하지만 스승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상관을 향해 총을 쏘아서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등 우리 주변에 너무나 한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노 하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가 있고, 그들의 입에는 악담이 있고, 그들에게는 감사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탄스러운 말세의 풍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는 자들의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고, 불경건과 그 결과로 불의한 것이 나타나서 고마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지존과 중 한 사람이 “내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럽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 뉘우치는 모습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고마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땅위에 많은 무리가 고마움이라는 것을 알지만, ‘정답게 부모의 은공을 알만하면 부모가 안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고마움에 감격해서 효도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미 부모는 가고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회를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고마

움을 모르고 무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듯이,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주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귄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다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입니다. 내게 감사가 있느냐? 고마움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아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에 고마움이 없다. 내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겠다”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 감사의 심정이 우러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여 감사 없는 저주받은 진노 하에 있는 그런 자와 구별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 감사가 무슨 감사인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특별히 11:33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유지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 모든 것을 간섭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아래 있고, 저주 아

래에 있었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죽음과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치 못하고 깊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구속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3:21~11:36까지 계속해서 이 놀라운 구속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참으로 구수하고 좋은 말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그러므로의 생애』라는 설교집이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 그러므로가 누구입니까?”라고 묻길래 “당신이 그러므로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우리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자비들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로 자비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므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진노에서 해방이 되고,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참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8:32).”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에 원수요 핍박자요 훼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택함 받은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생각하면서 자신 역시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지를 경험적으로 찬송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과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이것은 승리의 개가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슴속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른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존 뉴턴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뒤로하고 39세에 목사가 되어 찬송가 405장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영어로 음미해 보면 더 뜻이 깊습니다. 우리 찬송은 4절까지 되어 있지만 영어 찬송에는 본래 5절까지 있는데 ‘내가 일만 년을 하늘나라에서 지낸 다음에도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존 뉴턴은 이 구원해주시는 은혜가 늘 고맙고 감사해서 죽기 전에 그의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2가지 것을 기억하려 한다. 그 첫째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둘째는 이런 죄인인 나에게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려고 한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 구원의 토대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죄 사유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구속해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불평 없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 3. 성도의 감사는 예배적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감사는 예배적 감사입니다. 예배로서 감사입니다.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에 사용된 ‘예배’라는 말은 ‘봉사하랴’는 말입니다. 하나님 봉사가 예배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worship’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한 ‘worship service’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함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제사는 산 제물을 끌고 와서 죽여 바칩니다. 죽은 제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죽은 살코기 가져 와서 드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가져와서 죽여 바치지만, 신약에는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그대로 바치는 산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시할 감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질만 조금 바치고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이 함께 가야만이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걸인들에게 물질을 주면서도 귀찮은 마음을 표한다면 그 사람이 나갈 때 “얼마나 잘되는가 보자”고 합니다. 물질주고 인심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바치면서 마음 없이 억지로 하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찬송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한 감사를 주 앞에 돌려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에베소서 5:20과 데살로니가전서 5:18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사’ 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어려울 때와 최악의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하박국 3:16 이하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찬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때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도 모든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길 바랍니다. 학문에 ‘감사학’이 없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가운데서 ‘감사학’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나타나고 구원 받은 모든 은혜를 감사로 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심정으로 진정한 감사의 제물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고신대학교 경건회 설교 1994.11.8 -